

귀한 동역자님께,

미은 씨고더이썽큼 희망이 있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캄보디아의 정지웅/은영 선교사입니다. 지난주말의 깜뽕짬 단기선교의 소식을 감사함으로 전해드립니다. 2011 년 가을 처음 시작된 깜뽕짬 단기선교는 올해로 5 회째가 되었습니다. 팀원들은 금요일 저녁 교회로 모여 모임을 갖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깜뽕짬 프놈펜에서 130Km 의 차로 3 시간 거리 으로 이동했습니다.



고아원의 아이들도, 또 저희 교회의 청년들도 서로를 기억하고 기다렸습니다. 도착하여 차를 대자 아이들이 달려와 ‘뽕 뽕이~ 뽕 뽕이 형!’ 하고 부르며 문을 활짝 엽니다. 또 초등학교 오후반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저희를 보고는 활짝 웃으며 뚝뚝이에서 내렸습니다. (사진: 뽕뽕이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아이들과 만날 때 찍은 것입니다)

언어와 문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서먹할 것도, 알아갈 것도 별로 없습니다. 서로가 어렸을때부터 해왔던 놀이를 같이하고, 동요를 부르고, 또 함께 운동하면 그것이 가장 아이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매년 깜뽕짬에 오면, 저도, 팀원들도 모두 고아원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저희 청년들의 방에 서스럼 없이 들어가 같이 누워 놀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울리다가 시간이 되면, 놀고, 모여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리고, 성경을 나누고, 간증하고, 또 예배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아원은 모두의 집이고, 학교고, 교회고, 또 놀이터가 됩니다. (사진: 물 컵으로 물 나르기)



오후에 인근의 산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산의 이름은 ‘남자산, 여자산’ 인데, 그곳에 원숭이들이 많아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경계하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던 원숭이들이 차차 가까이 오고, 바나나를 던져주면 덤석 받아 앉아서 먹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유머를 보는 듯 했습니다. 또 공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어달리기 시합도 하였습니다.



이번 단기선교에는 특별한 하나의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리였습니다. 지난 동역서신 20 호에서 나눴던 루어타 형제를 중심으로 팀원중에 직장을 다니는 6 명이 힘을 합쳐 60 인분 식탁을 차리기로 한 것입니다. 고아원의 아이들이야 언제나 차려진 식탁을 대하니 별 차이가 없었겠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그곳의 선교사님 내외분과, 모든 스태프들, 특별히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특별한 쉼 rest 을 드리자는 취지였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분은 어색하신지, 계속 와서 일을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우리에게 필요한 쉼과 행복은 참 작은 것이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사진: 루어타 형제가 간을 맞추고, 헤잉롱이 돕고 있습니다)



간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모두가 프놈펜에서 대학을 다니거나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 이들입니다. 고아원 아이들에게는 가까운 미래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짧은 간증 시간을 통해 아이들을 격려하고 신앙을 고무시킵니다. 이번에도 간증의 내용은 꿈을 가질 것,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그리고 열심히 공부 할 것입니다. 사실 저와 같은 외국 선교사에게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것이 별 매력이 없습니다. 더 좋은 나라, 좋은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팀원들이 어린이들에게는 더욱 가능한 미래요, 열심의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답게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사진: 저희 팀원 중 양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엔 자매와 고아원의 아이입니다)



매년 저희는 어린이들을 위해 스킷 드라마를 연습해갑니다. 작년부터는 주제와 대본을 팀원들이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올해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 세끄터이쓰를란 너이 뿌레야' 이었습니다. 인생의 재미를 좇아 살아가던 친구들이 여러 모습의 계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온다는 내용입니다. 참 간단하지만, 그것이 어찌면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명쾌한 정리가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사진: 재밌대로 살 던 어느날 강도를 만나는 어려움이 닦치는 순간입니다)

이번 단기선교에서 3 명의 지체가 귀한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티어리와 모니레악, 그리고 헤잉롱입니다.

티어리는 지난 동역서신 22 호에서 나뉘던 재앙의 불길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는 꿈을 꾸었던 자매입니다. 불교집안에서 지금껏 여러번 귀신을 보고, 두려움에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외치기를 꺼려했지만, 이제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떳떳히 말하고 더이상 주저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모니레악은 저희 교회의 로고와 포스터를 제작한 재능과 실력을 갖춘 미술학도입니다. 2 년전 토요일 영어교실로 첫 발을 내딛은지, 2 년이 지났습니다. 가진 재능을 도구삼아, 자신을 위한 인생을 위해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길 바란다는 간증문을 읽을때 참으로 큰 은혜를 고백하였습니다. 헤잉롱 역시 지난 동역서신 23 호에서 나뉘던 형제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이상해서 상담을 받았던 참으로 깨끗한 마음을 가진 형제입니다. 이후 국립경영대학을 졸업하고 프놈펜 안의 직장을 얻어 일하고 있으며, 예배와 주중 성경공부를 성실히 참여하며, 성령께서 그의



믿음을 양육하사,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티어리와 모니레악 그리고 헤잉롱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사, 가정과 교회, 학교와 일터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 크리스찬으로 삼아주시길 기도해주세요.

주일에는 고아원과 뿌링째앙고아원에서 차로 30 분 고무농장 마을에서의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오전의 고아원 예배에서는 성찬식이 있었는데, 정지웅 선교사가 인도를 하였습니다. 오후의 고무농장에서의 예배에서는 고아원의 아이들이 찬양팀과 또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참으로 감동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고아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돌봄을 받아야하는데, 반대가 된 것입니다. 제가 봐도 참 기특하고 대견했는데, 그 아이들을 훈련시켜 세우신 고아원 선교사님에게는 얼마나 자랑스러웠을지 생각해봅니다.



주일 오후 짧지만 짝 찻던 모든 일정을 마치고, 팀원들은 짐을 꾸려 어둡기 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팀원들은 고아원에 간다고 자신들이 쓰던, 혹은 가지고 있던 여러 물품들도 전달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 쓸만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렵돈과도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받는 이보다 나눈 이들을 칭찬하시고 축복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함께 사랑의 손길이 모여, 고아원의 한달치 쌀 500kg 도 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사진을 찍고, 내년을 약속하고 저희는 프놈펜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2011 년에 아이들을 만났을때, 5 년을 오겠다고 약속한 것을 아이들과 지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청년 가운데 리더를 세워 단기팀을 보내는 것을 생각합니다.

깜빡잠에서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12 월 27 일 크리스마스 모임을 준비합니다. 또한 새 학기가 시작하여, 대학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치는 일도 이전보다 더 허락하셨고, 정은영 선교사의 건강도 계속 회복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새로운 해, 2016 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지에서 영혼들을 만나고, 섬기고 배워가는 모든 것은 동역자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늘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분들의 기도와 삶에 풍성히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도제목:

1. 선교사 부부의 영혼사랑과 영성을 더하시며, 정은영 선교사의 면역력과 건강 회복을 위하여
2. 12 월 27 일 크리스마스 예배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2016 년의 지평을 넓혀주시길
3. 운유, 주언이가 건강하고 충명히 자라며, 기독 초등학교의 매달 학비를 위하여

2015 년 12 월 11 일

정지웅/은영, 운유, 주언 올림



\* 고아원을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은 김영익 선교사님 (youngikkim0204@yahoo.com )께 말씀해주세요.

~ Episode ~

주언이의 새가방 New but Old

청년들이 집에서 가져온 물품중 몇가지는 다시 선교기금마련 판매를 하였습니다. 검은색 가방이 있었는데, 마침(?) 아무도 사지 않아, 저희가 샀습니다. 다행히 주언이가 맘에 들어해서 새로이 바꿔주었습니다. 아직 순진한 아이의 마음이 고맙고 기뻐합니다.

블랙 앤 화이트 Black & White

이번 단기선교 중 주일에 정지웅 선교사는 두가지 예식으로 한번은 하얀색 Baptism, 또 한번은 검은색 Lord's Supper 복장을 입었습니다. 모든 순서를 마치었을 때, '오늘 내가 복음을 입었구나' 하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가지 색의 옷을 입혀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시작\_ 또 하나의 스토리 Another story begins



10 명의 팀원가운데 한명이 라타낙입니다. 티어리의 동생으로, 지방에서고등학교 졸업시험에 떨어져 대학진학을 못하고, 누나가 있는 프놈펜으로 올라와, 학원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없고, 교회도 처음이었고, 누나가 간다니 나도 간다는 식으로 마지막에 단기팀에 합류했습니다. 꿈이 뭐냐 물으니, IT 를 배우는 것이라는데, 이유를 물으니 전문 해커(!)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깜뽕잠에선 별 말 없이, 프로그램 잘 따라가며 또 아이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큰 개를 보더니, 자기가 더 작은 것 같다고 농담정도 하는 것이 라타낙이 하는 대답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라타낙을 보며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또 한 형제의 하나님의 스토리가

시작된 것이 아닐까'

- The End -